##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채널A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 40 굿모닝 A | 00 KBS 뉴스광장 |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 50 인간극장 | |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br>50 MBC 아침드라 〈폭풍의 여자〉 | 30 KBC 모닝와이드 |
| 8 | 00 골든타임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br>40 지구촌 뉴스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25 닥터365<br>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
| 9 |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 30 KBS 뉴스 | 00 TV소설〈일편단심 민들레〉<br>40 여유만만 | 30 MBC 생활뉴스<br>45 기분좋은 날 | 10 좋은 아침 |
| 10 | 20 시사 인사이드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br>50 TV동화 빨간 자전거<br>55 튼튼생활체조 | 40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재) | | 00 SBS 뉴스<br>30 SBS 생활경제 |
| 11 | 30 나는 몸신이다(재) | 00 KBS네트워크특선 필통<br>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 | 00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재) | 00 KBC 생활뉴스<br>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재) |
| 12 | 40 채널A 뉴스특보 | 00 KBS 뉴스 12<br>55 바른말 고운말 | 00 생생 정보통 스페셜 | 00 MBC 정오뉴스<br>20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재) | 00 SBS 12 뉴스<br>30 2014 희망TV SBS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
| 1 | 40 김부장의 뉴스통 |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br>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 05 생로병사의 비밀(재) | 25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br>55 2014 청소년 푸른성장대상 | |
| 2 | 50 직언직설 | 10 KBS 파노라마 한국무형문화유산 2부작 | 00 KBS 뉴스타임<br>10 생활의 발견(재) | 55 MBC 뉴스 | |
| 3 | | 00 KBS 뉴스<br>10 한-아세안 최고경영자 포럼 | 00 꼬마신랑 쿵도령(재)<br>30 자동공부책상 위키 | 05 헬로키즈 숲속마을 붕붕붕2<br>55 보글 쿡 원정대 | 00 SBS 뉴스<br>10 SBS 이슈 인 사이드 |
| 4 | 00 정용관의 시사병법 | 00 시사진단<br>55 튼튼 생활 체조(재) | 00 TV유치원 콩다콩<br>30 마법 천자문 | 25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재) | 00 이야기 보따리<br>30 꾸러기 탐구 생활 |
| 5 | 00 하종대의 쾌도난마 | 00 KBS 뉴스 5<br>20 동물의 세계<br>40 남도지오그래피 | 00 꼬마기차 추추<br>20 인간극장 스페셜(재) | 00 MBC 이브닝 뉴스 | 00 SBS 뉴스퍼레이드<br>15 KBC 저녁뉴스<br>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
| 6 |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 00 6시 내고향<br>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00 KBS 글로벌24<br>30 생생 정보통 | 10 생방송 빛날 | 00 날씨와 생활<br>05 닥터365<br>10 KBC 생방송 투데이 |
| 7 |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 00 KBS 뉴스7<br>30 한국인의 밥상 | 50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 |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br>55 MBC 뉴스데스크 | 10 시사터치 따따부따<br>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
| 8 | 20 실화극장 〈그 날〉(재) |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br>50 7인의 미스코리아 |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 00 SBS8 뉴스<br>35 KBC 8 뉴스<br>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
| 9 | 30 채널A 종합뉴스 | 00 KBS 뉴스9 | | 30 리얼스토리 눈 | |
| 10 | 50 채널A 스포츠 뉴스 | 00 특별기획 코리언 지오그래픽 | 00 수목 드라마 〈왕의 얼굴〉 | 0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터 백〉 | 00 드라마 스페셜 〈피노키오〉 |
| 11 | 00 웰컴 투 시월드 | 00 KBS 뉴스라인<br>40 KBS특선 농업살리기 프로젝트 2부작 | 10 해피 투게더 | 15 한·영공동제작 다큐 꽃의 진화 1부 | 15 자기야 |
| 12 | 20 카톡쇼 S<br>①:30 채널A 일요기획(재) |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이한철의 올댓뮤직<br>①:20 생활의 발견 | 40 스포츠 하이라이트<br>55 걸어서 세계속으로<br>①:45 KBS파라노마(재) | 35 MBC 뉴스 24<br>①:05 우리가락 우리문화 스페셜 | 35 나이트 라인<br>①:05 토크콘서트 화통 |

### EBS

05:00 World News Review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07:00 시계마을 티키톡(재)
07:15 곤(재)
07:30 잭과 팡(재)
07:45 로보카 폴리(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08:35 방귀대장 뽕뽕이
08:50 How-만들어 볼까요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9:35 따개비루
09:40 부모 〈생활백과〉
10:1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 〈사왓디 캅! 태국〉(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3:05 역사채널e
13:10 부모광장(재)
13:40 내 이름은 펑키
13:50 뛰뛰 빵빵 올리
14:00 시계마을 티키톡
14:15 치로와 친구들
14:30 미술탐험대
14:45 미앤마이로봇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어린 왕자
15:30 정글북
15:45 모피와 친구들
16:00 딩동댕 유치원
16:20 버블버블 마린
16:35 원더 볼즈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7:30 로보카 폴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곤
19:30 달라졌어요(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영혼의 섬, 플로레스〉
21:30 한국기행 〈순천만〉
21:50 기획특집 〈수능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24:05 역사채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열기 〈유종현, 윤선명의 국어〉
00:50 〃 〈오광석의 수학 I〉
01:40 〃 〈오렌지의 영어〉
02:30 수능길잡이 〈문학〉
03:20 〃 〈수학 I〉
04:10 〃 〈미적분과 통계기본〉
05:50 〃 〈영어독해 유형〉
06:40 〃 〈박근영의 미적분 I〉
07:30 〃 〈차현우의 미적분II〉
08:20 〃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09:10 〃 〈독서와 문법〉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준의 국어〉
10:50 〃 〈최은진의 수학 I〉
11:40 박봄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12:1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13:05 〃 〈윤장환의 영어〉
14:00 고등예비과정 〈김소연의 수학II〉
14:50 〃 〈주혜연의 영어〉
15:40 2016 수능열기 〈오렌지의 영어〉
16:30 〃 〈유종현, 윤선명의 국어〉
17:20 〃 〈오광석의 수학 I〉
18:1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19:20 〃 〈최은진의 수학 I〉
20:00 〃 〈김소연의 수학II〉
20:50 〃 〈주혜연의 영어〉
21:50 수능길잡이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22:50 도전 직업체험
23:00 2016 수능개념 〈주혜연의 영어〉

### EBS플러스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07:30 실험관찰 비법 노트 〈5-2〉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8:30 검정고시 교육 강좌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영어 1〉
10:30 〃 〈도덕 2〉
11:10 〃 〈국어③④〉
11:50 〃 〈영어 2〉
12:30 등업신공 〈사회1〉
13:10 〃 〈역사 1〉
13:50 〃 〈역사2〉
14:30 〃 〈사회2〉
15:20 만점 〈과학 3-2〉
15:50 〃 〈과학 4-2〉
16:20 〃 〈과학 5-2〉
16:50 〃 〈과학 6-2〉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수학집중 6-2〉(재)
18:00 TV 중학 〈역사(하)〉
18:40 〃 〈사회 3〉
19:20 과학탐정단 시드
19:40 사이틴 백만이의 지구뉴스
20:00 EBS 인문학 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등업 신공 〈과학 3-2〉
22:40 중학e포스영어독해 〈주제별〉
23:20 〃 〈유형별〉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8일(음 10월 27일 癸亥)

**子** 36년생 끈기가 필요하다. 48년생 첫 눈에 미심쩍은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자. 60년생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할 시기이다. 72년생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84년생 희망 사항을 어렵사리 이루어 가는 형상이로다. 행운의 숫자 : 34, 63

**丑** 37년생 강인한 정신과 굳센 추진력이 필요하다. 49년생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다. 61년생 희비가 교차하는 하루이다. 73년생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리어 처리해야만 한다. 85년생 활용의 폭에 달려있다. 행운의 숫자 : 18, 83

**寅** 38년생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50년생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 오게 되리라. 62년생 난관이 많아 보이니 차라리 시작하지 않음만 못하다. 74년생 다잡을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6, 08

**卯** 39년생 진행되고 있는 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51년생 원하고 있었던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63년생 막힌 곳이 있어서 매우 답답하겠다. 75년생 여러 가지 동향을 고려해서 대응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5, 47

**辰** 40년생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우는 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2년생 옛일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다. 64년생 방만한 마음이 허점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76년생 흉이 변해 길해지니 뜻대로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9, 59

**巳** 41년생 집착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53년생 주의해야 할 것은 철저히 살펴야 하느니라. 65년생 투명하게 처리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77년생 원대한 계획으로 임해야 값진 수확을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40

**午** 42년생 기왕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것이 옳다. 54년생 원점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66년생 내키지 않으면 재빨리 변경하는 것이 낫다. 78년생 협조를 가장해서 자신의 실속을 채우려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3, 76

**未** 43년생 치밀하고 상세해야만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55년생 주의를 다 하지 않으면 흉사가 벌어지겠다. 67년생 두드러져서 크게 주목 받게 될 것이다. 79년생 구체적이어야만 실효성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0, 54

**申** 44년생 균열이 가기 전에 예비 점검을 확실히 하자. 56년생 내실을 기했을 때 자기 발전을 꾀하게 되는 법이다. 68년생 기다렸다는 듯이 때맞추어 나타나리라. 80년생 괴로움이 사라지면서 평온함이 깃든다. 행운의 숫자 : 31, 23

**酉** 45년생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57년생 재물운이 왕성해 보이니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69년생 순응하는 자세가 가장 무난하다. 81년생 오랜 세월 속의 염원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60, 69

**戌** 46년생 한 곳에만 제대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8년생 너무 오래 되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70년생 천천히 실행되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82년생 불균형이 보이니 바로 잡자. 행운의 숫자 : 70, 95

**亥** 47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59년생 가변적인 모습이니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 71년생 대세에 따름이 백 번 나을 것이다. 83년생 불편해 왔던 것이 두드러져서 난감 하겠다. 행운의 숫자 : 77, 0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 통쾌하고도 짜릿한 진짜 검사 이야기

## MBC '오만과 편견'·SBS '펀치'
## 검사들 세상 후벼 파는 재미 쏠쏠~
## 환상적인 캐스팅 극의 완성도 높여

글발이 통쾌하다. 반전은 짜릿하다. 그리고 연기와 완성도가 멋지다. 검사의 세계를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덤빈 두 편의 드라마가 잇달아 꽉 찬 속내와 매끈한 만듦새로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교롭게도 두 드라마가 같은 시간에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점. '덕분'에 시청자는 두 드라마를 비교하기도, 감상하기도 바빠졌지만, 두 드라마를 모두 보느라 시간을 두 배로 들여도 손해 봤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다.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등장했다가 출발부터 월화극 1위를 달리며 '다크호스'로 떠오른 MBC TV '오만과 편견'에 이어 지난 15일 시작한 SBS TV '펀치'가 검사들의 세상에 메스를 들이대고 후벼 파는 재미가 쏠쏠하다.

검찰의 세계는 태생적으로 많은 얘깃거리를 잉태하고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천혜의 환경인 까닭에 검사는 같은 이유로 드라마에 끊임없이 등장해온 의사와 함께 시청자에게도 아주 익숙한 직업군이다.

하지만 '오만과 편견'의 이현주 작가와 '펀치'의 박경수 작가는 스토리의 근간인 취재와 구슬을 꿰는 필력의 차이를 보여주며 또다시 검사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또한 양 드라마 모두 주조연 가릴 것 없는 환상적인 캐스팅이 앙상블을 이루며 극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제 관건은 어쩔 수 없이 '생방송'으로 제작되는 두 작품 모두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잘 달려갈 것이냐는 점이다.

'오만과 편견'이나 '펀치'나 큰 구도는 같다. 이미 때가 묻을 대로 다 묻고 오물이 튈 대로 다 튄 검찰의 윗선들과 그 아래 패기 창창하고 의욕 충만하고 잃을 것 없는 청년 검사들의 대결이다.

'오만과 편견'은 15년 전 미제 사건을 둘러싸고 열혈 검사 구동치(최진혁 분)가 보이지 않는 검찰 윗선과 그들마저 조종하는 더 큰 세력의 실체를 까발리기 위해 검사직(심지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야기다. 그런 그를 여전히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알 수 없는 능구렁이 부장검사 문희만(최민수)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켜보고 있다. 문희만은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줄을 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5일 방송에서 문희만은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구동치에게 검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윗선'의 허락 없이는 센 놈을 잡지 못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문희만은 "그게 말이에요. 반복되어져왔던 이곳의 역사예요"라며 자신의 충고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럼에도 무소의 뿔처럼 달려나가는 구동치는 문희만 부장검사부터 검찰국장에까지 줄줄이 소환장을 발부해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캐겠다고 덤볐다.

'오만관 편견'이 검은 구름 뒤에 숨은 윗선의 실체를 양파껍질 까듯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면, '펀치'는 아예 첫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윗선의 모습을 숨김없이 까발렸다. 검찰총장 교체를 앞두고 자신보다 1년 후배인 법무연수원장이 새 총장 후보로 거론되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후배를 밀어내고 총장 자리에 앉겠다는 이태준 서울지검장의 야비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정면으로 그려졌다.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해 자신들이 쓰는 수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이태준은 뱀 같은 미소를 지으며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콩밥을 먹어도 나랏밥을 먹는 것"이라고 내뱉는다. 그 자리까지 올라온 것도 순간순간 그러한 도박을 했기에 가능했음을 단적으로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태준이 걸어온 삶은 법무장관의 입을 통해서도 한번에 설명이 됐다.

'펀치'는 일개 평검사인 신하경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누워있는 유치원 버스 기사를 위해 용감무쌍하게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는 모습으로, '오만과 편견'은 윗선의 온갖 방해에도 공소시효가 코 앞으로 다가온 15년 전 아동 납치·살인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구동치의 집념으로 아직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 구동치는 "센 놈을 잡을 때 더 힘센 놈의 허락은 필요 없다"고 받아치는 패기로 시청자의 판타지를 구현한다.

'오만과 편견', '펀치'는 이렇듯 정의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두 젊은 검사를 내세워 뭐든 할 수 있는 재벌과 부패한 권력이라는 거악에 대항한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 할지라도 나름의 절절한 사연과 사건을 붙여가며 이러한 구도에 극단의 차이를 벌려놓고, 다시 그 차를 서서히 좁혀나가는 과정을 통해 쾌감을 전하고자 한다.

양 드라마가 직면한 사건의 피해자 가족 중에 이들 청년 검사가 관련돼 있다는 우연한 공통점도 드라마적 재미를 극대화하는 장치다.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장관을 지나, 총리에까지 올라보려 하는 야망에 불타는 올드보이 검사와 성역없이 나쁜 사람을 벌주는 게 검사의 할 일이라는 뉴보이 검사들의 대결, 관전의 재미가 쏠쏠하다.

# tvN '미생' 패러디 '미생물' 내년 1월 방영

## 장그래 역은 젝스키스 출신 장수원 맡아

tvN이 '미생'의 인기에 힘입어 이를 패러디한 드라마 '미생물'을 선보인다. tvN은 2부작 코믹 드라마 '미생물'을 내년 1월 2일과 9일 밤 9시50분에 방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젝스키스 출신으로 KBS 2TV '사랑과 전쟁'에서 재연연기를 펼치며 '발연기'로 웃음을 자아낸 장수원이 주인공 장그래 역을 맡고 개그맨 황현희, 장도연, 황제성, 이진호, 이용진 등이 출연한다.

'미생'에서는 장그래가 바둑을 하다 프로 입단에 실패하면서 입사하는 설정이었다면, '미생물'의 장그래는 아이돌 연습생이었지만 연예계 데뷔에 실패한 뒤 회사에 들어가는 인물이다.

tvN은 "배꼽빠지는 패러디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연습생 시절을 떠올리며 미생물이었던 주인공 장그래가 점점 생물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는 기획의도가 폭소를 자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생'이 올 하반기를 대표하는 드라마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섬세한 묘사, 코믹한 설정을 통해 새해 초부터 시청자들에게 흐뭇한 웃음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드라마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